랜드로버 SUV 레인지로버 벨라 시승기

레인지로버 '벨라'가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새로운 실내외 디자인과 온·오프로드를 아우르는 극강의 주행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재규어 랜드로버

첨단 디자인+럭셔리 품격…"왕세자급이군"

온·오프로드를 아우르는 주행 능력
실내외 디자인 미니멀리즘의 극치
1억대 불구 반자율주행 기능 없어

자동차

'고급스럽고 도시화된 오프로더'. 럭셔리 SUV 브랜드인 랜드로버의 최상위 라인 레인지로버 시리즈를 아우르는 문구이자, 레인지로버 가문을 이끌 새로운 왕세자 '벨라'(VELAR)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표현이다.

벨라는 기존 레인지로버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온로드에서는 고급 세단 수준의 승차감을 오프로드에서는 타 브랜드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험로 주행성능을 갖춘 팔방미인이다.

가장 대중적인 크기의 중형 SUV로 포지셔닝했지만 가격은 결코 대중적이지 않다. 주력 모델들은 9850만원∼1억2600만원대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레인지로버 벨라를 시승했다.

●혁신적 실내, 터치 프로 듀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벨라를 마주하면 우선 미니멀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벨라의 디자인이 곧 레인지로버가 지향하는 디자인의 미래다. 강렬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전면 그릴과 긴 보닛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도어 핸들도 기존의 차량에서 볼 수 없던 플러쉬형 도틀 채택하고 있다. 도어의 잠금을 해제하면 숨어있던 도어 핸들이 스르륵 튀어나오고 주행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모습을 감춘다. 디자인 요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기저항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벨라의 공기 저항 계수는 0.32cd에 불과하다. SUV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실내로 들어서면 누구라도 감탄할만한 인테리어가 펼쳐진다. 핵심 요소는 '터치 프로 듀오'(Touch Pro Duo)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차량 중앙에 고화질 10인치 터치스크린 두 대가 자리하고 있다. 상단 스크린으로는 내비게이션과 미디어를, 하단 스크린으로는 각종 공조 기능과 차량 기능을 통제할 수 있다. 하단의 공조 기능까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계기판으로 처리한 것이 이채롭다. 얇은 정전식 폴리카보네이트(capacitive polycarbonate) 계기판은 터치감도 좋고, 설명서를 읽지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다. 차량 계기판도 디지털이다. 차세대 12.3인치 TFT 계기판을 사용해 화질과 밝기가 기존 대비 50% 이상 향상됐다. 한여름의 강렬한 햇살아래 주행을 해도 시인성이 뛰어나다.

●고급스러운 주행감성, 첨단 안전 사양은 부족

이번 시승차는 1억1530∼1억2620만원인 D300 R-Dynamic 모델이다. 1억원대의 SUV는 승차감과 정숙성에서 3000∼4000만원대 국산 중형 SUV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승차감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정숙성과 고속 주행시의 안정감을 비교해보자면 쏘나타와 제네시스의 차이 정도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온로드 주행시의 감성만 비교하자면 그렇다.

어떤 속도에서 코너를 과격하게 돌아나가도 허둥대지 않는 묵직함, 스포츠카에 가까운 제로백 6.5초의 가속성능, 1500rpm에서 71.4kg.m의 토크를 발휘하는 강력한 힘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SUV 승차감과 성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코너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토크벡터링 기능과 스티어링휠이 정면 위치로 돌아갈 때 더욱 자연스러운 회전을 도와주는 액티브 리턴 기능도 거대한 차체를 더 쉽고 빠르게 운전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오프로드 능력은 국산 SUV가 넘볼 수 없는 영역에 있다. 시승 코스가 온로드 위주로 이루어져 벨라의 오프로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쉽지만,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이보크를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벨라 역시 강력한 오프로드 능력을 지니고 있다. D300모델에는 기본 적용되는 에어 서스펜션은 주행 환경에 따라 최저 지상고를 251mm까지 높일 수 있고, 최대 650mm의 물길을 지나갈 수 있는 도강 능력을 자랑한다.

사실 레인지로버는 일반도로 주행보다 눈길, 자갈, 암석 등 극한의 험로에서도 차체가 삐걱이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험로 주행 능력을 한 번 경험해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1억원의 가치는 일상적인 도로 주행에서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1억짜리 차에 통풍 시트나 하이패스도 달려있지 않으며, 이 가격대의 차량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첨단 안전 사양인 차선유지 보조 시스템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이 없다는 점은 분명 아쉽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레인지로버 벨라 실내 인테리어

레인지로버 벨라 주요 제원

구분	D240 S	D240 R-Dynamic SE	D300 R-Dynamic SE	D300 R-Dynamic HSE	P380 R-Dynamic SE
엔진형식	I4Turbo Diesel	I4Turbo Diesel	V6Turbo Diesel	V6Turbo Diesel	V6 Supercharged
총배기량(cc)	1,999	1,999	2,993	2,993	2,995
최고출력(PS/rpm)	240/ 4,000	240/ 4,000	300/ 4,000	300/ 4,000	380/ 6,500
최대토크(kg.m/rpm)	51.0 / 1,500	51.0 / 1,500	71.4 / 1,500–1,750	71.4 / 1,500–1,750	45.9/3,500–5,000
트랜스미션	8단 자동	8단 자동	8단 자동	8단 자동	8단 자동
구동방식	4WD	4WD	4WD	4WD	4WD
복합연비 (km/l)	10.9	10.9	12.8	12.8	7.8
도심/고속로연비 (km/l)	10.5 / 11.4	10.5 / 11.4	10.9 / 16.2	10.9 / 16.2	7.0 / 9.1
0→100km/h(초)	7.3	7.3	6.5	6.5	5.7

복합 문화체험 공간 '캐딜락 하우스 서울' 오픈

전시 및 VR체험존, 라운지 등 공간 운영

캐딜락은 24일 서울 논현동에 복합 문화체험 공간 '캐딜락 하우스 서울'(사진)을 공식 오픈했다.

뉴욕 소호에 작년 처음 오픈한 캐딜락 하우스는 전 세계 자동차 팬은 물론 예술, 패션 트랜드 세터들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캐딜락은 뉴욕에 이어 '캐딜락 하우스 서울'을 아시아 최초로 오픈했다.

캐딜락 하우스 서울에는 캐딜락의 브랜드 초대형 프레스티지SUV인 에스컬레이드와 CT6, XT5를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명 포토그래퍼 JDZ가 소녀시대 수영, 다니엘 헤니 그리고 이민정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만든 캐딜락 화보 작품을 전시한다.

아울러 캐딜락의 모든 차량 라인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최첨단 VR 체험 존과 미팅룸, 오픈 라운지,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캐딜락 하우스 서울'은 24일부터 9월17일까지 25일간 팝업 스튜디오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원성열 기자

지프, 레니게이드 나이트 이글 에디션 출시

피아트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지프(Jeep®)의 소형 SUV '지프 레니게이드 나이트 이글'(사진) 에디션을 출시했다. 블랙 색상이 적용된 전후면 지프 뱃지 및 그릴, 측면의 블랙 레니게이드 뱃지, 후면의 블랙 나이트 이글 뱃지, 글로스 블랙 18-인치 휠 및 후방 범퍼 등을 통해 강인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실내 역시 블랙 컬러를 기본으로 스티어링 휠 베젤, 대시보드 베젤 등에 글로스 블랙 컬러를 적용하고, 시프트 노브에는 메탈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줘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4륜구동(AWD)인 레니게이드 나이트 이글 에디션에는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2.0L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했고 9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했다. 소형 SUV지만 동급 유일의 셀렉-터레인 지형설정 시스템도 장착했다. 어드밴스드 브레이크 어시스트, 앞좌석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등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는 40대 한정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404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원성열 기자

반려동물 앱, 수의사가 개발했다고?

포인핸드 앱, 동물 입양·분실 정보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상작

펫

#서울에 사는 김○○씨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그러던 중 유기동물 입양 및 실종동물 정보를 제공하는 '포인핸드' 앱을 알게 됐고, 실종·보호코너에 등록된 사진과 관련내용을 보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았다.

#수원시에 사는 이○○씨는 평소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 관련 봉사활동을 하다가 '포인핸드' 앱을 알게 됐다. 이 앱을 통해 집근처에서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되지 않은 유기견을 미리 검색해 보고 입양을 했다.

유기동물 입양과 실종동물 정보를 제공하는 앱 '포인핸드(Paw in Hand)'. 전국에 유기되는 동물을 기간별·지역별·축종별로 검색하고, 실종동물 등록 및 비교 찾기, 동물정보 SNS 공유, 동물등록 실시간 알림, 관심동물 지정·관리, 보호소 정보제공, 입양절차정보 안내, 입양후기 등 반려동물 관련 각종 정보와 커뮤니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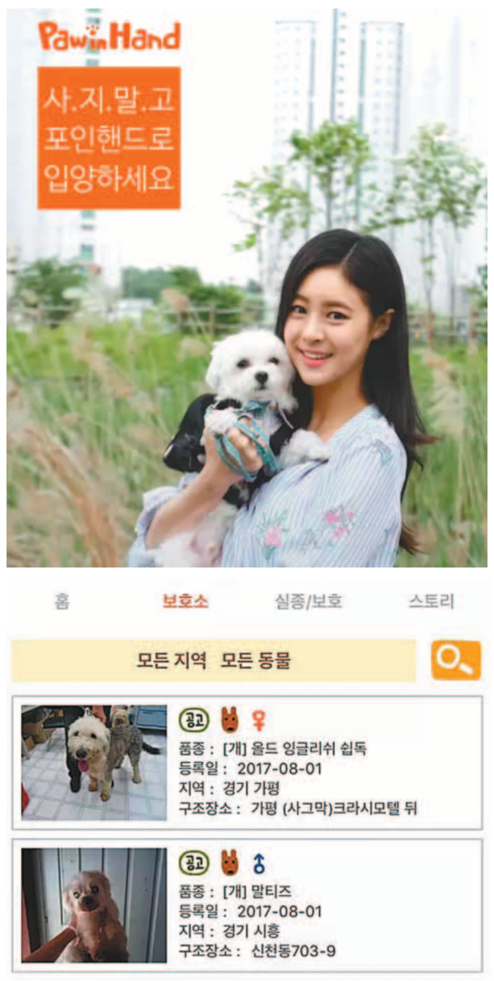
창업 준비 중인 현직 수의사가 개발했다. 2017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상작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진출해 있다.

'포인핸드'는 현재까지 개발된 농식품 관련 앱 중 활용도가 높은 국민 앱(32만명 활용) 1위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민간에서 개발한 앱 중 대국민 활용도가 가장 높아 14일에는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현장시연회를 갖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8만9732마리나 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조 등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수치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형태는 분양(30.4%), 자연사(25.0%), 안락사(19.9%), 소유주 인도(15.2%) 순이며, 2014년 이후 안락사는 줄어들고 소유주 인도가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인핸드' 앱 사용이 늘어나면 전국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유기동물 반환·입양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반려동물 관련 각종 정보와 커뮤니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앱 '포인핸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이름 지어주세요

31일까지…10월 개관 앞두고 명칭 공모

서울특별시가 10월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지하1층에 개관하는 동물복지지원시설 명칭을 공모(사진)한다.

응모 기간은 31일까지며, 응모방법은 '내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 공모전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 후 이메일 (vetman21@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제출 시 제목에 '동물복지지원시설 명칭 응모(지원자 성명)'라고 써야 한다. 응모횟수 및 수량에 제한은 없으나 제출양식 당 1개만 응모 가능하다. 최우수상(1명) 50만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2명) 각 30만원 상당 상품권, 장려상(3명) 각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내손안에 서울 공모전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9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0월에 개관예정인 동물복지지원시설은 면적 591.3㎡(공용포함 총 1476.58㎡) 규모로 100마리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다. 동물병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동물보호 교육센터, 동물보호정책 연구개발 및 지역 커뮤니티 등을 갖춘다.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피학대 동물에 대한 인수·보호,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관리와 입양 희망자에 대한 상담·교육이 이뤄진다. 동물병원에서는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치료와 보호, 도심 유기동물 등에 대한 전염병 검진(방역)과 예방, 입양동물의 건강검진과 중성화 수술을 담당한다. 동물보호 교육센터는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 시민단체·교육기관 등과 연계를 통한 동물보호 교육실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용운 기자

편집 | 이수진 기자